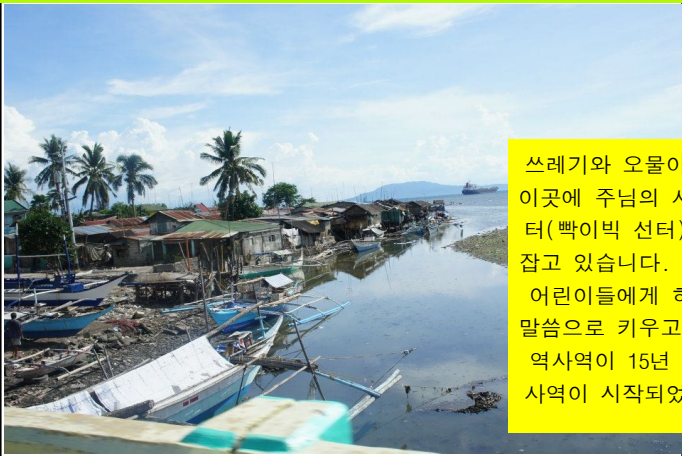


와와(Wawa) 사랑 센터(Pagibig Center) 소식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한 이곳에 주님의 사랑의 센터(뽕이빅 센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자 이 지역사역이 15년 전 부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교회에서 10분 거리인 삼각주 '와와'동네에서 시작한 사랑센터 유치원은 제8회 졸업예배가 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문맹퇴치프로그램 일환으로 시작한 유치원이지만 이곳에서 많은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왕의 자녀들 학교에서 교육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학생들이 입학은 많이 하였지만 부모들의 관심도와 영적이 문

제 때문에 결국 졸업생은 항상 70%-80%에 그칩니다.

조그만한 집을 한 채 구입하여 교실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다가, 옆으로 확장하였어도 늘 장소가 협소하고 비가 오면 지붕에서 빗물이 떨어지고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증축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와와 사랑센터(Wawa Pagibig) 예전의 모습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왕의 자녀들 학교 졸업식에 다녀가신 목사님들께서(정자교회, 만평교회, 에덴교회) 서로 힘을 모으셔서 센터를 리노베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당장 증축에 필요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공사현장에 기술자인 '준'형제가 재정은 '리젤'집사가 모든 연락책과 공사재료 담당은 '울리'집사 및 공급책은 '에이유스'장로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는 10월 중순에 헌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이단교회가 '와와'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열악하지만 본 센터

이 어린이들은 와와(Wawa)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랑유치원생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행사들과 졸업식은 본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현재는 증축공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공사가 완공이 될 때까지 KKCA 유치원이 마치면 이 교실을 빌려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8회 와와 사랑센터(Wawa Pagibig) 유치원 졸업식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악한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사실 이 지역은 필리핀의 이단이 강한 지역입니다.



와와 사랑센터(Wawa Pagibig) 증축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 단기 선교 팀 소식

Daegu Namduk Church Mission Team 대구 남덕교회(담임: 최원주목사님) 27명의 주의 군사가 26일부터 7월2일까지 (6박7일간을) 바탕가스에 단기 선교로 왔습니다. 현지 답사부터 시작하여 진행되었던 팀입니다. 필리핀 바탕가스에 도착하여 교회 일치 기도회에 참석하여 특순을 시작으로 하여 KKCA 학교에서 특순과 ITA 부족의 사역과 수요, 금요기도회 참석, 주일 예배 참석, 의료사역, 커피서비스, 피자캠프, 그리고 KFC 어린이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타 부족의 센터 앞을 콘크리트로 포장공사를 하였습니다. 이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눈물과 땀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2012 대구 남덕교회 단기 선교팀 대 예배시 특송

바탕가스 교회연합 협의회 (BCEC) 소식



월말 기도회에서(복음감리교회)

이 나라의 국교인 천주교를 포함하여 8개 교단을 연합하여 만든 교회 바탕가스 교회 일치 협의회(BCEC: Batangas City Ecumenical Council)는 사람들의 벽을 허물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실천 강령을 몸소 체험하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었습니다. 저 자신이 어릴 때 천주교에서 영세(영세명: 보니파시오)를 받았지만 필리핀에서는 천주교가 너무나도 변질되어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예전에는 늘 적대시(?)하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뇌리에 스쳐갑니다. 결국 주님께서 저에게 “너의 이웃이 누구냐?” 라고 물어오셨고, 철저히 저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때부터 현지인들을 품고 문화를 이해하며 영혼에게 다가 가야겠다는 일환으로 교회 일치 연합회가 태동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6개의 교단으로 시작되었다가 두 개의 교단이 허입이 되



저희 교회에서 설교 중

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주님의 진리의 복음이 멀리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BPC)를 제외한 7 회원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 ICCEC (International Communion of the Charismatic Episcopal Church)
- IEMELIF (Iglesia Evangelica Metodista En Las Islas Filipinas)
- UCCP (United Church of Christ in the Philippines)
- IFI (Iglesia Filipina Independiente)
- UMC (United Methodist Church)
- ACC (Apostolic Catholic Church)
- RCC (Roman Catholic Church)



2009년도에 시작한 바탕가스 교회 일치 협의회(BCEC: Batangas City Ecumenical Council)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이 나라의 국교인 로마 개톨릭, 독립교회, 감리교, 복음감리교, 그리스도연합교회, 성공회, 사도 천주교,와 저희 교회가 총 8개 교단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월 교회를 순회하면서 기도회로 모입니다. 지역의 불의와 퇴폐를 물리치고 공의로운 주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관점은 복음의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이 인프라를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제가 이 모임의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필리핀 장로회 총회(GAPCP), 남부노회(SLP)소식



필리핀 장로회 총회 제25주년 창립 기념대회

1978년도 6월 29일에 김활영목사님(Rev. Dr. Hwal Young Kim)내외분께서 이곳 필리핀에 도착하여 시작 하였던 장로교회의 역사가 이제는 필리핀 장로교회 총회(GAPCP)로 발전하여 2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본 교단은 대한 예수교 장로교회 합동측, 통합측, 고 신측, 합동 보수등 연합으로 현지인교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학교 운영도 함께 동역하고 있답니 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300개의 교회로 성장하고 있 는 교단입니다.

지난 6월 12일에는 필리핀 장로회 총회 제25주년 창립 기념 대회를 마닐라 Word of Hope 교회에서 성 대하게 치렀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년 모 임의 가장 의미있는 것은 예전과는 달리 자체적으로 행사가 치루어진 것입니다.

개인이 참가비를 내고, 등록비와 도시락을 가져와서 하루 내내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현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의 입장으로 시작한 기념예배는 한국 다사교회 최웅철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고, 예 능교회 조건희 목사님께서 목회자 경품 오토바이를 기 증하셨습니다. 학생 청년들의 준비한 각종 찬양순서가 행사장을 아름답게 수 놓았습니다.

오후에는 천국에서 온 빵(Bread from Heaven)교회 담임 인 Dr. Cornelio Castillo목사님의 주제 (Expanding God 's Horizon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라) 강의도 있었 습니다.

이날에 저희 선교사인 “윌리엄(Rev. William Rufi- no)” 선교사 가족의 선교사 재 파송식도 함께 있었습



총회 임원들과 대회 참석자 모두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



PCP 교회를 섬긴 것이 20년이 되었습니다.

니다.” 또한 그 동안 총회를 지속적으로 섬 겨왔던 사역자들 가운 데 10년 차, 20년 차 의 근속상도 주어졌습 니다. 감사하게도 저 희 가정 또한 20년을 본 교단을 섬겼기에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 니다. 배후에는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이

있기에 오늘이 있는 것을 인하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필리핀 장로회 총회 제25주년 창립 기념대회 사역자들



제16회 PCP 총회 신 구 임원 교체

작년 제16회 필리핀 장로교회 총회(GAPCP)에서 부족한 제가 부총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부총회장의 선출 후보가 필리핀 현지인 목회자후보와 선교사인 제가 함께 경선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의 정견발표는 필리핀교단에 필리핀의 지도자가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지만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의 개표결과와는 부족한 것에 많은 표를 던져주었습니다. 결국 겸허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는 10월 중순에 저희 바탕가스 장로교회에서 제17회 성총회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2년도 제7회 장로교회 총회를 유치를 하였고, 올해 이렇게 10년이 지나서 저희 교회에서 귀한 일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곳 바탕가스 교회에서 꼬박 20년을 섬겼는데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 울산 노회장이셨고 현재 파송 교회인 병영교회 담임목사님과 정자교회 정재기목사님께서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부족한 것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특별히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 동안 이곳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학적으로 준비하였던 선교학 박사(D. Miss) 과정을 모두 마치고 미국 인디애나주에 있는 그레이스 신학교(www.Grace.edu)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마침 미국 시카고에서 필리핀 아메리카 연합 그리스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Bishop Pascua (UCCP교단 직



전 사무총장)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의 오정훈목사님과 호주의 하태식목사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지에서 늘 고민인 현지 지도자 이양에 대한 논문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논문제목은 "A Study on Pastoral Leadership From a Local Missionary to an Indigenous Leader"입니다. 더 나은 현지교회를 위하여 현지 사역자들에게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로써 필리핀을 밟은 지가 22년이며 바탕가스 교회를 섬긴 지가 20년째 되었습니다. 정말로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것으로써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이 있기에 오늘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면을 통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